

# 아 시 아 경 기 대 회 와 군 사 연 습

아마 체육경기만큼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활동은 없을것이다. 비록 성별과 나이,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함께 어울려 승부를 겨루는 체육경기야말로 평화와 친선, 단결과 협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수 있다. 하기에 프랑스코육가 꾸멜랭의 발기로 부활된 올림픽경기대회도 모든 대륙의 체육애호가들과 청년들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것이다. 4년에 한번씩 올림픽경기대회가사이에 열려 《아시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아시아경기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아시아경기대회가 17번째로 남조선의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아시아의 45개 나라가 참가하게 된다 고 한다.

얼마전 공화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것은 즉시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인천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열렬한 환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천시는 《북의 참가가 남북화해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조직위원회 역시 《북선수, 공민단, 안전문제, 숙박과 입원등등 북선수단의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

라고 하였다.

지금 온 겨레가 공화국의 조치에 반가움과 환영을 표시하고 그것이 단절된 북남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유익한 계기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다 아는것처럼 오늘의 북남관계는 민족의 지향과는 반대로 대결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6.15시대의 모든 성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종래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 다. 동족대결과 불신이 격화되어 사소한 언행이나 소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 파멸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것이 오늘 북남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공화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고 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취한 지극히 애족적인 조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돌아켜보면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체육분야에서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을 추동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대학생경기대회, 2005년 인천아시아륙상선수권대회 가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때 공화국은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의 응원단도 파견하였었다. 당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북과 남이 따로 없이 함께 어울려

웨치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그때와 같은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것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진행되자면 그를 위한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8월에 남조선에서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되어있다.

화약내를 질게 풍기는 군사연습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육경기대회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더우기 이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겨냥한 핵선제공격 훈련, 침략전쟁연습이라는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울지연습》은 1968년 이른바 《북독수부대의 청와대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하여온 《민관합동훈련》으로서 《유신》독재시기의 대표적인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다. 이것이 1975년부터 남조선미국련합성령부주도하의 합동군사연습인 《포커스 렌즈》와 통합되어 《울지 포커스 렌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오다가 2008년부터 《울지 프리

덤 가디언》으로 개칭되게 되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 이 해마다 확대되어온 대 규모의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이다. 2008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첫 《울지 프리덤 가디언》훈련에 미군 무력 1만여명과 수십만명의 남조선군병력, 《향토예비군》 무력, 《정부》 공무원들이 참가하였다면 지난해에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3만 명의 미군과 남조선군의 군단, 함대, 비행단급이상의 지휘부 5만여명과 3 500여개의 기관에 50만여명이 동원되는 세계최대규모의 실전훈련으로 확대되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도 발전적이고 선제공격적인 훈련으로 보통확대되어왔는바 2010년에는 북의 《금반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2012년에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하여 연습이 진행되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전략특목기 《B-52H》전대가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훈련까지 강행하였다.

사실 이 러함에도 불구하고

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올해에도 기어이 강행하려 하는것은 무엇으로든 긴장경화를 몰아올 침략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

금방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진 땅에서 북과 남이 함께 어울린다는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또 어울린다고 해도 얼마나 성과를 낼수 있겠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1990년대초에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현 남조선당국이 그때와 같은 결단을 내린다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짚는것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북의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지가 상당히 보인다》

### 남 조선 각 계 가 환영

지난 7일 공화국정부는 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로서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할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성명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 정계와 각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은 7일 론평에서 《북응원단참여로 아시아경기대회 흥행은 물론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결정을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련합 수석대변인은 《북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더불어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련합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드린다.》고 자기 당의 립장을 밝혔다.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새

누리당》은 론평에서 《북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방문은 최근 일어불을대로 일어불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것》이라며 《조직위원회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북의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공화국의 응원단파견이 북남긴장해소와 대화성공에 기여할것이라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관계개선에도 기여할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날 《북은 2005년에도 인천아시아륙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바 있다.》며 《북선수단과 응원단의 두번째 방문으로 인천이 북남화해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통일맞이》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북의 응원단파견결

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남과 북이 남북선수단을 같은 공간에서 응원하는것이야말로 민족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의 확고한 표징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8일 《북응원단파견, 《정부》의 환영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남북의 공동응원이 일어불은 남북관계를 늦게 하는 뜨거운 열기가 되도록 만드는것이 《정부》목》이라고 강조했다 하면서 《북응원단과 공동응원을 하고싶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북이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북이 응원단을 보내며 남북관계개선의지를 밝히는것을 보면 북의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지가 상당히 보인다고 평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김철진

## 금메달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려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두달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화국에서는 경기에 참가할 선수단의 훈련이 더욱 맹렬하게 진행되고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내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야겠다는것이 선수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애국의 각오이고 열의이다.

그 열의를 안고 훈련에 맘을 바치는 선수들중에는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하늘 높이 휘날린 이름난 우수

한 선수들이 많다.

얼마전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울란바타르그랜드유술경기대회 녀자 78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설경선수도 온 나라 인민이 다 알고 사랑하는 선수이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공화국을 비롯하여 27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 280여명이 참가하였다.

설경선수는 예선경기에서 중국대북, 캐나다선수들을, 준결승경기에서 마자르선수들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설경선수는 독특한 경기전법과 완강한 루치로 도이힐란드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제경기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단상을 올라선 금메달의 주인공 설경선수.

그는 2013년 세계유술선

수권대회 녀자 78kg급경기에서도 도이힐란드, 마자르,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선수들을 모두 반란 또는 한판으로 모두 좋게 메치고 우승을 한 처녀선수장사이다.

평양기계대학체육단 선수인 그의 나이는 올해 24살이다. 평양에서 철도노동자의 딸로 태어난 설경선수는 어려서부터 동갑배기는 물론 한두살우인 조각에들까지 어찌지 못할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한다. 이런 육체적조건으로 하여 체육전문가들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결국 11살때부터는 평양기계대학체육단에서 유술선수로 활약하게 된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설경선수



제 14 차 아 시 아 경 기 대 회 에서 열 린 응 원 을 하 는 북 과 남 의 응 원 단



##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

지금 온 겨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발포된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이어 발표된 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에 남측당국이 하루속히 응호나오기를 기대하고있다. 더우기 북의 정부성명에서 표명한 인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이 파견되는것에 대해 열렬한 호응을 보내면서 그의 성과적보장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의 못한 이러저러한 소리가 튀어나와 내외의 반격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남조선군부당국은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와 군사훈련을 두고 《도발과 위협》이라는 판에 박은 소리를 늘어놓던 끝에 《특별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전술》이니, 《화전방면전술》이니 하며 시비질해나갔다. 그런가하면 《KBS》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남남갈등책》이니, 《정치적발언》이니 뭐니 하던 나머지 북의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천명된 제안은 《스포츠와는 무관한 정치공세》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꺼내놓고있다.

날로 뜨겁게 불출되는 겨레의 북남관계 개선요구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며칠전 공화국에서는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런이어 공화국군대의 전술로케트발사 훈련도 보기 좋게 진행되었다.

공화국에서 성공리에 진행된 로케트발사와 훈련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당당당한것으로서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자위권행사이다. 이러한 훈련이 그 누구에게 《도발과 위협》으로 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의 정상적인 훈련이 《위협》으로 보이는자들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며 북을 애제보겠다고 기회만 노리는 침략세력들뿐이다.

지난 11일 남조선의 부산항에는 미국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입항하였다. 《조지 워싱턴》호가 남조선에 기여든것은 단순히 유람이나 하하고 온것이 아니다. 전루기 70여대를 싣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들이 나타나서 지역들에서는 언제나 정세가 긴장되고 전쟁의 위험이 뒤따랐다. 이러한 핵항공모함이 남조선에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나라나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저들이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외세를 마구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를 《위협》으로 묘사하는 남조선군부당국의 태도는 그들이 어제도 오늘도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대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태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립장표명을 한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평화와 친선, 단결을 도모하는 국제체육의 정신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남남갈등책》이니, 《정치공세》이니 하고 떠드는것은 굳이칠대도 굳이치대 내결판에 포로되서 색안경을 끼고 덮여놓고 동족을 포함하는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남관계개선과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고있는 때에 이에 정면배치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사고관점과 그에 따른 행동은 현실과 분리된 매우 불미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진보도 보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벗어나 누구나 다 민족의 이익을 앞에 놓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는 망동은 언제나 자기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남조선군부당국과 보수언론들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모 알고 민족의 이익에 저촉되는 해로운 망동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김응철

최근 남조선에서 외부와 철저히 격폐되어 비밀리에 운영되고있던 정보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내막이 공개되어 사람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200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남조선의 경기가 시흥시의 인적드문 번두리에 6만 1 000여평에 달하는 부지면적을 차지하고있으며 높은 담장위에 철조망까지 둘러치고 일반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있는 음침한 곳이다.

하다면 이러한 정보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무엇때문에 설립되었으며 어떻게 되어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것이다.

명목상 《중앙합동신문센터》는 《탈북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다음 《정착교육시설》이라고 하는 《하나원》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혹박속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사회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처음으

로 자기의 진모습을 낱날이 드러났다. 폭로된데 의하면 이곳에서 수용자들은 6개월이상 외부와 일체 련계가 없이 구금당한채 알몸수색과 소지품검사, 지문채취, 사진촬영, 거짓말참지기사, 진술서작성강요 등 고강도 심문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매 방에는 감시용카메라

가 있어 24시간 수용자들을 감시하고있으며 심지어 목욕을 할 때에도 카메라의 감시밑에 진행되고있는 바 이는 녀성들이라 해도 예외로 되지 않는다. 결국 남조선당국에서 떠드는 간첩단사건이라는것과 그 무슨 《탈북》사건, 조난당한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귀순조작몰이를 다 이러한 모략소굴에서 조작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남조선에 끌려온 《탈북자》들을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인권의 사막지대이며 여기에서 조작

이 산생되고있는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찰살해 해준다 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증언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있다. 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의 녀동생에 대한 강압적인 폭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을 받아내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꾸며냈는가 하면 무명의 《탈북자》들을 감박하여 북보위부직과간첩사건을 날조해낸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결국 남조선당국에서 떠드는 간첩단사건이라는것과 그 무슨 《탈북》사건, 조난당한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귀순조작몰이를 다 이러한 모략소굴에서 조작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언론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남조선에 끌려온 《탈북자》들을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인권의 사막지대이며 여기에서 조작

한 또 다른 《탈북자》 간첩사건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이러한 《남조선관 판파나모》와 같은 모략소굴이 있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준렬히 단죄판하고있다.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대선》개입과 같은 불법무도한 투대형 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수업을 빼 썼는 정보원이 고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모략과 음모로 전문으로 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까지 차려놓고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반인륜적만행을 빼앗지 자행하는 정보원의 범죄적 행위는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반공화국대결의 온갖 모략의 날조품을 산생하는 정보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반공화국대결의 모략소굴로서 북과 남사이에서 대결과 불신을 가지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남조선사회의 치절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당장 없여져야 한다.

강봉기